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춘천성시 Vol. 218 3+4월 2017

춘천성시화운동본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춘천교계 소식을 빠르고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facebook.com/holycc1972

이 달의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14

이 달의 기도제목

1. 만인기도네트워크 비전
2.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
3. 나라와 민족, 대권을 통해 예비된 참된 일군이 서게 하소서



2017 부활절 연합 예배는 "예수 부활 생명축제"로 영광을 돌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고통당하며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잔인하고 억울한 죽음으로 죽으셨지만 못 박혀 죽으신지 삼일 만에 부활로 승리하시며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부활절 기념 연합예배가 올해는 만천리 순복음춘천교회에서 오후 2시에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 기독교연합회(박상칠 회장) 주관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백의 머리를 밟는 말씀의 성취의 역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축복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가 열방에 전할 주요 복음이었고 생명을 일으킬 놀라운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이 부활의 축복이 절망으로 덮여 있는 우리 민족의 심장 같은 춘천에서 특별하게 드려지게 되길 기도하며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야겠습니다. 부활절에 우리 춘천의 기독교인들은 전통적으로는 시청광장에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새벽의 문을 열며 예배드리는 특별한 행사가 있어왔습니다만 올해는 신청사의 건축관계로 가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연합회는 부활을 통해 전 시민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널리 나누는 기회를 삼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문화 예술을 겸한 부활절 특별 예배로 드리고 난 후, 오후2시에는 모두 길거리로 흩어져서 도시를 위해 기도하면서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나누며 기쁨을 함께 하는 행사를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한 행사내용과 소개 그리고 행사의 전반적인 것을 본 지면을 통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부활절의 특징이 있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1부 예배는 문화적 청년 예배로 "예수 부활 생명축제"로 드려집니다. 자원하는 모든 교회의 청년들이 연합으로 대형 찬양단을 조성하여 온 강단을 가득 메우게 됩니다. 이 청년들은 새벽이슬 같이 찬양으로 우렁차게 문을 열며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찬양 예배로 나아가게 된다. 이에 모든 성도들은 1시50분까지 교회에 오셔서 앞자리부터 채워주시고 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부 예배는 각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 의해 기도와 말씀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말씀은 신촌성결교회 원로목사이며 성결교 전 총회장이신 이정익 목사님이 증거하십니다. 이 목사님은 오래전 소양성결교회를 시무하였고, 춘천성시화의 지도자로 교계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중의 한 분입니다.

3부 순서는 부활절 달걀 전도 나눔 행사를 가지는데, 각 교회와 성도 사업체들의 모금을 통해 달걀 일 만개를 준비합니다. 교회 정면에서 함께 기도한 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다함께 나누어서 거리로 흩어지게 된다. 성도의 연합과 함께 모든 시민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기쁜 승리 소식을 전하면서 거리마다 골목마다 나누고 집으로 자유롭게 귀가하시면서 모든 행사가 마무리 됩니다.

이에 모든 교회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절망과 어두움의 세대에게 소망과 희망의 빛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글 조영춘사무총장



부모 없는 아이?

우리는 흔히 부모 없는 아이를 '고아'라고 부른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로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없다. 반드시 낳아준 부모가 있다. 마찬가지로 깊이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은 영적 고아가 아니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계시다.

가끔 집이 없고,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은 절대 유령일리 없다. 그 사람도 분명 태어난 장소가 있고, 태어난 때가 있을 것이다. 극단적 진화론의 문제는 우리를 마땅한 출처나 주소지가 없는 '미아'와 같은 존재로 취급해버리는 것이다. 안심하라. 우리에게 영적인 아버지가 계신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가까운 교회를 찾으라.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신다.

전도광고 후원 / 김수정 사모(사암교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발행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발행인 이사장 박인관 부이사장 이수형
춘천기독교연합회장 박상칠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120 302호
T 033-256-1260 F 033-257-1260

춘천성시신문을 만드는 사람들 사무총장 조영춘 사무차장 최상도 사무국장 이은정 편집국장 이관형 _ 디자인 및 인쇄 로딘어스 070.4300.8731



'10,000人 기도 만인 후원 운동' 펼쳐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만 명의 기도 후원자와 만 명의 1천원 후원자 모집

우리의 꿈은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도시가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의 Goal이요 목회자들의 목회 목표이자 내용이며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고 꿈 곧 드림이자 비전이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곳이요 사람들을 가리킨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서 이루어 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셨다. 주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빌라도 앞에서 천명하실 때에도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사단 곧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다른 곳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마을, 지역, 도시,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사회를 건설한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이것은 곧 모든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이 동시에 바라보고 실현해 나가야 할 과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성시화는 전 세계 성도와 교회가 자기들이 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꿈꾸는 것이기에 믿는 사람들 중 단 한 사람도 '나는 성시화와 관계없어!' 라고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건 특정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그것은 두가지의 방식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 아주 오래된 선교방법이지만 복음화와 인간화이다. 지금까지도 한국교회는 복음화는 보수교단이 인간화는 진보교단이 한다고 생각하여 왔다. 그러나 이 일은 동시에 추진하여야 할 일이지 나눠서 할 일이 아니다.

첫째는 영혼구원이다. 즉, 직접적인 영혼구원을 위한 전도와 선교가 추진되어야 한다. 영혼구원없이 먹고 입는 육체적인 삶의 질의 웰빙만 가지고는 결코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 영혼과 육신을 나누는 일에도 분명 문제가 있기는 하나 여하튼 영혼이 구원받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대일로 인격적인 영접이 이루어 져야한다. 이 일도 이제는 개 교회별 전도도 효과가 너무 적다 따라서 연합하여 함께 영혼구원을 위해 머리를 맞대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도시 전체가 구원받는 복음화의 전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에 성시화운동을 기필코 일어나야 한다

둘째는 사회구원이다. 사회는 악을 향해 치닫고 분열과 포스트모던이라는 상대주의로 주인잃은 혼란으로 동성애를 비롯한 한 세대 전에 도무지 상상하지 못하던 일들이 판을 치고 있다. 이런 때에 교회가 사회를 등지고 '내 교회만!' 이라는 카테고리에 갇혀 만족하고 있으면 세상은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질 것이고 침몰시키려고 덤벼들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세대를 일으키고 인재를 양성하며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한 문화변혁을 위한 은사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교회와 교회, 성도와 성도가 연합하여 은사별로 춘천이라는 지역 아니 자기가 살고 있는 각 도시 도시마다 시와 도의 행정과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최대한 구성, 활용하여 사역함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영혼구원과 함께 사회구원과 함께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이 일은 한 교회 또는 개 교회의 힘으로는 불가하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성시화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령의 바람과 목회자와 성도들의 사명감과 열정이 있어야 하고 물질과 사회적 인프라와 연계할 수 있는 은사별 사역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성시화를 위한 기도동역자들이 필요하다. 기도하여야 한다. 기도가 모여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춘천 땅에 임하여야 한다. 그런데 맨 입으로 기도만 하면 되는 가 인재양성을 하고 전도지를 만들고 은사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기도하되 물질도 모여야 하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천 원씩 만이라고 헌신하여 물방울이 모여 강이 되고 대해가 되듯이 일만명의 회원이 모집되면 천만원의 재정이 성시화운동본부에 투입되게 된다. 그러면 기도와 함께 모여진 물질이 다방면의 강력한 성시화 운동을 일으키는 모티브가 되는 것이다.

춘천의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일만인 기도운동에 동참하라! 이것은 거룩한 부르심이며 지금 우리 시대, 이 땅 여기서 감당해야 할 나! 아니 우리 모두!의 사역이기 때문이다. 일어나 이 기도의 운동에 동참하여 빛을 발합시다.

이 일만인 기도운동에 동참하실 분들은 성시화운동본부에 전화(033.256.1260)로 알려주시거나 교회를 통해 배부되는 신청서로 신청해주십시오.

글/ 박인관 이사장

"4/14윈도우"란 4~14세 연령층을 선교의 파트너로 인식하여 그들을 일으키는 운동입니다

제10회 4/14윈도우포럼

교회의 가정세우기

성경적 학부모 모델링을 위하여

2017.4.10~11(월~화)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_ 서초구 사랑의교회 남측 B4층 아트홀

다음세대를 위해 교회-가정의 연계, 교회의 학부모 훈련이 절실합니다

제1일 주강사 장순흠 총장
박상진 교수
Jeremy West
강안삼 대표

제2일 주강사 김용태 교수
송근후 교장
김성묵 장로
이충삼 교장
이시영 장로

주 최
주 관
후 원
참가대상
등록신청
Facebook

가정

귀한 손님상 차림으로 대접하는 '봄내 예찬'







▲ 이영욱 서예성 집사

봄내 예찬이란 이름을 짓게 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교회와 관련된 이름을 짓고 싶어서 '예수님 찬양'의 뜻을 담았어요. 또 '예를 갖춘 반찬'이란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구요. 예찬 앞에 봄내가 수식하고 있는데 '춘천 시민들에게 좋은 밥상을 대접한다'는 뜻과 마음을 담았습니다.

고향은 화천이고, 성남서 생활하셨다고 들었는데 춘천에서 터를 잡게 되신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남편 집사님이 성남에서 13년간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후에 춘천으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제대 후에 식당겸 한 가게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화천에 있는 땅에서 농사지은 들깨를 짜러 성남서 옆집 봄내 기름방앗간에 기름 짜러 왔다가 우연히 지금 자리가 비어 있어서 갑자기 하게 되었어요.

식당이 쉽지 않으실텐데 시작하시게 된 동기가 있으세요?

한 명이 만들어서 여러 명이 나눠먹는 것이 좋아요. 또 밥 한 끼를 잘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몸이 아파 항암치료 받을 때 친정엄마가 1년 동안 오셔서 밥을 잘 해주신 것이 치료에 큰 도움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다는 것을 많이 먹는데 저는 아플 때 엄마가 해주는 밥만 먹고 회복하고, 건강해져서 밥 한 끼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의 비결이 "밥 한 끼를 잘 먹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툭툭 던져주는 밥이 아니라, 귀한 손님이 오시면 보관했던 그릇을 꺼내 대접하듯이, 기분 좋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한 밥상을 차려서 대접하자는 마음으로 그릇도 일반 식당과 차별화된 식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하시며 식당을 중단하고 싶다거나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선택한 것에 후회는 없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오시니까 손님들의 기대와 운영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이해관계의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추가비용 없이 넉넉히 후하게 음식을 드리고자 하고,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악용하는 경우를 만날 때 난감해요. 1인 식은 없다라고 처음 시작했을 때인데요. 작은 규모의 공간에서 준비한 하루 소비 할 음식이 인원대비에 맞추다보니 발생하는 문제였는데, 2년을 지나니까 이제는 입소문을 통해 손님들이 오셔서 잘 정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차린 밥상 한 끼를 먹는 손님의 기분과 마음을 헤아리는 운영방식과 자세를 손님들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반이 가격대가 높다고 '무슨 백반이 ***원이야?' 툭 던지는 말-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추구하는 방향에 맞게 준비하다보면 재료비와 수익이 거의 없어요. 온 식구가 같이 한다는 즐거움으로 감수하고 있어요.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재료비만 생각하고, 적자를 감수하며 운영했는데, 2년을 넘어가며, 온 식구의 인건비를 고려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에 있어 어려운 점을 고려한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5개월 전부터 4인 한 가족 도시락을 개발하여 시판하고 있습니다. 점심과 저녁의 한시적 시간과, 매장의 공간 부족으로 충당되지 않는 것이 도시락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부족분을 충당하고, 추구하는 귀한 밥상 한 끼를 대접하는 마음도 이어갈 수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인원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준비한 재료비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데 도시락을 개발한 후 규모의 제한도 해결되고, 그 날 그 날 소비할 재료도 측정하게 됩니다. 도시락 반찬은 11가지가 됩니다. 매일 반찬 식단을 짜기도 하고 당일 시장상황도 고려하여 메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4인 가족이 드실 수 있는 밥 한 끼라 충분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체주문도 예약하시면 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는지요?

저-부인 서예성집사-는 카톨릭 신자였고, 남편-이영욱 집사-은 모태신앙이세요. 가족과 친척 중에 목회자도 몇 분 계시는 집안입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남편 따라 교회를 다니게 되었지요. 친정 엄마께서 "결혼했으니까 남편 따라 가는 것이 좋다, 교회를 같이 다녀라" 말씀해 주셔서 다니게 되었고,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좋아 잘 다니게 되었어요. 일하러-교회식당봉사, 김장하기, 구역예배 가기등- 가는 게 즐거워서 교회를 자주가게 되었지요. 남편 따라 다니던 신앙이 아플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신앙생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아픈 후에 적극적으로 친정엄마도 교회를 열심히 가라고 권유하셨어요. 남편 집사님 군 복무기간에는 군 기지교회를 다녔구요. 지금은 자녀(딸 2명)들과 함께 중앙성결교회(유동선목사님 담임) 출석하며 모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손님이 대접받고 가는 느낌'이라고, '생일상 받은 기분이다', '대접받고 가는 기분이다'라며 고맙다고 하시는 손님들 보면서 감사하는 봄내 예찬!!

하루 일을 마치고 온 가족이 손잡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마무리하며, 수익이 아니라 매출 총액의 십일조 생활을 목표로 하고 경영한다고 합니다. 봄내 시민을 대접하는 밥상이 일국을 대접하는 큰 밥상, 큰 기업으로 번창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취재 이연희 객원기자

칼럼

君君臣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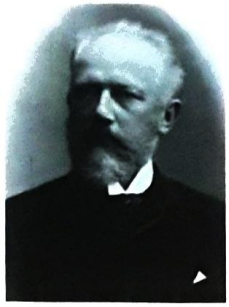
글 / 김종열 장로
(춘천홀리클럽 회장, 신성감리교회)

'君君臣臣'이란 말이 있다.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란 뜻이다. 요즈음 우리나라 사회 현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모든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다 상대적인 사람이나 상황에 그 잘못의 원인을 돌리며 원망과 함께 뿜박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어떤 유형의 잘못이든지 그 근본의 저변에는 누군가가 개입되어 있음은 명백한 사실인 것이다. 그 누군가의 실체를 밝히려는 일에 대하여 왈가왈부할 의도는 없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켜보는 보통 사람들은 그 진행과정을 보면서 한심스런 마음과 심지어 짜증이 난다고 한다. 생각의 차이로 인하여 어떠한 일이든 같은 결론을 낸다는 것은 쉽지도 않지만 바람직한 일 처리도 아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방법의 옳고 그름은 보통의 가치관으로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리다. 이런 결론의 집단이래야 미래 지향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다.

그 나라가 잘되고 못되는 것은 그 나라 임금에게 달렸다. 그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것도 그 사회의 지도자에게 달렸다. 한 가정이 잘 되는 것도 가장인 아버지에게 달렸고, 한 교회가 부흥 발전하는 것도 목회자에게 달렸다. 임금이 임금답게, 사회지도자가 지도자답게, 아버지가 아버지답게,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그 본분에 사적인 욕심 없이 최선을 다한다면 요즈음과 같은 사회 현상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임금이, 지도자가, 아버지가, 목회자가 잘 하더라도 그들을 보좌하는 참모들도 참모답게란 말을 잘 음미하고 술수나 꼼수로 보좌할 생각을 버린다면 우리 사회는 희망의 사회가 될 것이다. 교회의 부흥과 도약은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보좌하는 장로들이 장로답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끊임없는 기도할 때 이루어 질 것이다.

음악 이야기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제1번 B단조 작품 23 (P.I. TCHAICOVSKY, 1840-1893 :PIANO CONCERTO NO. 1 Bb min. Op. 23)



묵은 해와 함께 힘들었던 모든 일은 날려버리고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밝은 태양 함께 소망이 넘치는 2017년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차가운 북구의 얼음을 깨뜨리고 울려 퍼지는 겨울 왕국의 음악들을 살펴보다가, 슬라브 민족의 웅장함과 화려한 기교도 함께 놓치지 않고 있는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곡을 빼놓을 수가 없어서 먼저 소개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린 시절 클래식 방송에서 자주 흘러나오는 호른과 트럼펫 등의 금관 악기의 멋진 도입부와 피아노 연주가 귀에 익숙했던 추억이 있어서 클래식 입문 때부터 자주 애청했던 곡입니다. 나중에 1974년 콩쿨에서 정명훈 선생님이 일등 없는 2등으로 천재성을 당당히 세계에 알렸던 곡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의 그것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대표적인 피아노협주곡의 진수인 제1번은 원래 1874년 크리스마스 당시 모스크바 음악원의 명 피아니스트였던 니콜라이 루빈스타인에게 헌정되었지만 난해하다는 이유로 혹평과 함께 거절당했습니다. 다시 그의 음악애호가였던 지휘자 한스 폰 뷜로에게 헌정해 1875년 미국 보스톤에서 초연되었습니다. 그리고나서 모스크바에서는 그로부터 3년 뒤인 1878년 3월에 루빈스타인의 사과와 함께 초연되었습니다. 교향곡과 협주곡 그리고 발레 음악에 있어서 그의 명성은 러시아의 국민 음악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겨울이면 언제나 떠오르는 발레 음악 〈호두까기 인형〉이나 〈백조의 호수〉〈로미오와 줄리엣〉 등은 생페테르부르그 시절부터 음악적 수업과 모스크바에서의 풍성한 슬라브 감성에 젖은 그의 음악세계를 피아노 협주곡으로 알릴 무렵까지 비교적 늦은 나이에 빛을 발한 음악가로서의 그의 작품 세계는 19세기의 러시아 센티멘탈리즘을 대표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냉전의 시대에 미국의 밴 클라이번이 차이코프스키 콩쿨에서 입상했던 소식은 그 당시 전 세계의 음악동호인들에게 놀람을 선사했었고,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한국이 낳은 위대한 정스 트리오 페밀리의 정명훈 선생님이 입상했을 때는 요즘의 쇼팽 콩쿨의 조성진 형제만큼 우리에게도 커다란 즐거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거의 방송국에서나 클래식 다방에서 피아노협주곡 1번은 익숙하게 들을 수 있었던 레퍼터리였으니까요. 새해벽두부터 겨울 왕국에서 들려오는 차거운 피아노의 음률이 매력적인 북유럽의 그리그를 소개하려다가 아무래도 차이코프스키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서 그의 협주곡을 1월의 음악이야기로 선정했습니다. 멋진 서주부터 4대의 호른의 웅장함이 슬라브인의 강인함처럼 들려질텐데요 곧 이어지는 그의 특유의 섬세함과 감상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역시 정명훈 선생님이나 반 클라이번의 흑백 연주회실황도 좋구요, 우리의 자랑스런 젊은 연주가 조성진이나 손열음의 연주로도 힘이나 섬세한 터치에 진한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유명한 음반으로는 카라얀이나 토스카니니의 지휘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한번 겨울왕국에서 들려오는 웅장함과 감성을 아울러 선사하는 그의 피아노협주곡을 뜨거운 아메리카노 한잔이나 군고구마가 익고 있는 난로불 곁에서 감상해보시지요. 새해에도 주님의 축복과 기쁨 가득한 한 해되십시오. 봄내 만천리에서 다니가 보내드린 서른 네번 째 음악이야기였습니다.

글 / 김금찬 선교사
JDM 선교사 / jdmdanny@yahoo.com







춘천성시화운동의 산실,
〈평신도성경구락부〉 회원으로 활동한
김기태 장로 (춘천중앙감리교회 원로장로)

춘천 성시화운동 45년을 맞이하여 1970년대 춘천성시화운동의 산실이었던 〈평신도성경구락부〉 회원으로 활동하였고 연로한 지금도 역동적으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김기태" 원로장로님을 통하여 그 시대의 상황과 현재, 미래의 방향등을 들어본다.

은퇴하신지가 퍽 오래되신 것으로 압니다만, 춘천성시화운동의 산실인 〈평신도성경구락부〉 회원으로 활동하시던 때를 회고해 주십시요?

새해를 맞이하니 여든 세 살이 되네요. 서른일곱 살에 장로가 되어 은퇴하여 10년이 넘었으니 통산하여 46년 장로 입니다. 별로 한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제가 춘천에 온 것은 1972년 여름 강원도 교육연구원이고, 교회는 춘천중앙감리교입니다.

37세 젊은이가 역사 있는 교회의 장로이니 교회와 직장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살피더군요.

연구원의 정길연 권사님, 도교육청의 이학규 권사님이 "Bible Club"을 설명하면서 강원 일보사 엘리트 중견 기자 조남진 집사님을 첫 번째로 소개해 주셨어요. 모임에는 장로가 저 혼자여서 좀 어색했으나 몇 년 지나 모두 장로로 일을 하게 되어 힘이 났습니다.

그때의 면면을 보면, 교육계는 정길연, 이학규, 문선재 권사, 언론계는 조남진 집사, 경제계 김형목 집사, 공직에는 이원봉, 박태준 집사, 사회는 켐페이지의 박재헌 집사 등, 비슷한 나이의 젊음이 모여 매주 춘천의 복음화와 민음의 확립을 위해 기도하며 성경공부를 했어요.

얼마 후 '민족복음화전도요원"의 춘천 실내 체육관 "춘천성시화 운동 전도대회"에서 평신도성경구락부 회원들이 뜨겁게 성령의 불길을 받아 기도하였고, 저도 동참을 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춘천 사람이 되면서 귀한 신앙 동지들을 만나고 노년이 되어서도 그들과 함께 사는 행복을 누리고 있어서 저는 늘 감사를 드립니다.

73년도의 춘천은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100여 교회에 장로는 48명뿐 이어서 평신도 활동이 아주 약했어요. 저는 젊은 장로로 공직자이니 사명감이 생기더군요. 교단별로 연세 많은 장로님들 12분을 모시고 초교파 장로회를 조직하여 총무를 5년 동안 자청해서 했습니다. 이 조직이 춘천성시화운동을 이해하고 돕는 큰 매체가 되어서 저는 볼 때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탄생과 이 운동에 대한 바램, 그리고 발전을 위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패기 넘치던 성경구락부 멤버들의 직장이동, 사임과 탄과 '성시운동'에 관심 있던 목사님들도 사역하던 곳을 떠나면서 잠시 성시운동이 주춤 하더니, 세월이 흘러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성경구락부 회원들은 40대 후반이 되어서 직장과 사회의 책임자가 되었고, 요직에서 활동하게 되니 다시 평신도 운동이 불붙기 시작했지요. 직장 신우회, 와이즈 맨 클럽 등이 큰 바탕을 이루는데, 춘천을 거쳐 간 평신도들이 기관장으로 돌아와서 같이 활동하게 되었고 '춘천성시화 운동본부' 창립에 함께 하니,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가 춘천을 '거룩한 도시'로 이룩하자는 염원을 담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춘천을 이렇게 사랑하시더군요. ' 할렐루야!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기관장들이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으니 그분들이 떠난 후 지역에 남아 있는 기도꾼들이 춘천 성시화의 틀을 맡아야하는데, 조남진 장로님 같은 분이 있는 한 잘 되겠지' 그 생각이 적중했어요. 든든히 자리 잡은 성시화운동이 지금껏 잘 진행 되는 것을 보면서 '지도자의 이끌음' '교회와 성도의 적극적 참여' '시민의식의 변화' 삼위일체가 이루어지면, 성시운동은 성공 한다 고 확신했지요. 아직은 좀 미흡해도 나중에는 잘 성취되라 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한때 제게 이운동의 선무를 맡으라 함을을 사양하였던 생각이나서 회고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연합하고 평신도들의 참이복을 넓혀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목사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솔선 참여하는 것이 소중하며, 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기독교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춘천에 강원기독교 역사박물관을 세워야하고, 기독교인상(賞)제도 제정, 기독교 장학재단, 기독교문화 전파, 기독문인의 발굴로 문화선교를 이루고, 교파를 초월한 연합 체육대회 등 이런 문제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미래 계획을 들으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산만한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춘천성시화는 성도들의 신앙의 마음 밭에 파고들어야하며 신앙지도자들은 참여 동기 부여를 해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교회의 연합 활동이 잘 될 방안을 모색하면서 성시화의 홍보가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저는 강원도기독교 역사정리 회보 제2호 발간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원기독문인회 회장으로 기독교 문학인들이 글로 선교 하도록 문학인들에게 당부를 늘 드리고 있습니다. 장로님 들을 중심으로 10년을 이끌어온 칠락회 모임도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임도 이 달에 100회째 모입니다.

나이테가 자꾸 늘어나니 의욕이 내려가고, 아쉽고 두렵고 자신 없는 마음이 생기네요.

시간은 흐르고 역사는 계속 만들어짐으로 할 일은 많은데, 이런 일들을 '춘천성시화운동본부'와 '춘천성시신문'이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이 힘껏 해주십시오. 젊은 평신도 장로님들! 춘천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독자여러분께도 당부 드리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약력소개]
삼척도서관 초대관장(서기관)
강원기독문화.역사 연구회장(회보발간)
강원 기독문인회 창립회장(수필가.등단)
예향의 샘 발행인 (게간잡지등록 제6호 발행)

취재 / 김영명 객원기자

교계 소식

98주년 삼일절 연합수요예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려야 하는 이 때에, 98주년 삼일절 연합예배가 춘천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지난 3월 1일(수) 저녁7시에 신성감리교회(박상칠 목사)에서 수요예배로 드려졌다. 수석부회장 신재원 목사(새춘천교회)의 인도로 대표기도는 부회장 남준섭 장로(장로연합회장, 순복음춘천교회)가 했다. 서기 박태균 목사(주님의 교회)의 갈라디아서 5장1절 말씀 봉독 후, 신성감리교회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었다. 회장 박상칠 목사의 인사말씀에 이어 강사이신 이필섭 장로(국군중앙교회, 합참의장 역임)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자"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이필섭 장로는 "3.1운동 정신은 무저항주의와 기독교적 정신인 애국정신운동이었다. 대한민국의 첫 단추도 기도로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웃사랑정신 나라사랑 정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포부에서 시작된 일이다."며 선조들의 기독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의 멍에를 메지 않는 나라로 살려면 하나님의 비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한다. 인류 구속의 역사의 중심에 한국 교회가 다시 서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피종호 목사(나눔교회), "강원도와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조영호 목사(춘천그리스도의 교회), "삼일절 정신과 민음을 본받기 위해" 김창환 목사(온누리교회)의 인도로 특별기도시간이 있었다. 헌금기도에는 지용찬 목사(은혜교회), 봉헌찬양은 강원CBS소년소녀합창단이 했다. 그리고 광고에는 총무 최상도 목사(사암교회), 독립선언문 낭독에는 박윤경 집사(강원CBS 아나운서), 만세삼창은 김종열 장로(홀리클럽 회장, 신성감리교회)의 인도로 진행되었다. 이어 초기 찬송가인 제14불변가(애국가) 제창이 있은 후, 차덕수 목사(직전회장, 강원침례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63차 춘천모임
기도는 복음적 평화통일의 문을 여는 열쇠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저녁7시15분에 주향교회(이병철 목사)에서 열리고 있는 쥬빌리통일구국기도모임이 63차 모임을 가졌다. 이날에는 오일환 장로(기독교통일



학회)가 강사로 세워져 "기도는 복음적 평화통일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도고자들이 매달 뜨거운 찬양과 간절한 기도로 모임을 계속 갖고 있는데, 특별히 춘천장로연합회와 홀리클럽에서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4월 64차 모임은 4월 10일(월)이며 강사는 장창근 목사(예루살렘 멜기세덱 하우스)이다.

제1회 강원기독공직자선교대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



강원도청기독선교회(조인묵 회장) 주최로 열린 제1회 강원기독공직자선교대회가 2월 25일(토) 오전10-오후5시까지 동부교회(김한호 목사)에서 열렸다. 1부 개회예배에서는 도청선교회 찬양팀(한제남강도사 인도)의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되어, 조인묵 회장의 인도로 예배가 진행되었다. 예배에서는 김한호 목사(동부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인(눅10:33-37)"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어 축도로 마친 후, 특강이 계속되었다. 특강에는 홍헌선 권사(전 한국기독공직자선교연합회 대표회장)가 "나는 누구입니까(Who am I?), 부제: 강원기독공직자 선교회 비전과 전략"이란 제목으로 하였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사역 나눔과 합심기도, 기독공직자윤리강령을 낭독하며 주기도로 강원기독공직자 선교대회를 마무리 했다. 이 날에는 강원도내 18개 시군 기독선교회 임원을 비롯한 회원들이 한 자리를 해서 예배와 기독공직자로서의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인묵 회장은 "그동안 강원기독공직자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미스바와 같은 성회가 되기를 기도하여 준비해왔다"며 은혜로운 성회가 된 것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강원CBS사옥건축을 위한 장로교연합 방송선교대회
"하나님의 손을 빌리자"
강원CBS방송(나이영 본부장)은 지난 3월 5일(주일) 오후2시30분 온누리교회에서는 사옥건축을위한 장로교연합 방송선교대회를 가졌다. 강원CBS 주최, 춘천장로교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선교대회는 김원중 목사(장로교연합회 회장, 춘천우리교회)의 인도로 진행



되었다.
이 날 강사인 김선규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는 "하나님의 손을 빌리자(수6:1-9)"라는 제목의 말씀선포를 했다. 김선규 목사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빌려 사는 사람이다. 이를 위해 성결한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 하나님의 손을 빌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라"라고 선포하였다.
이어 나이영 본부장(강원CBS)은 "강원CBS가 사옥건축을 통해 '교회와 하나 되는 선교기관으로', '사회를 선도하는 언론기관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사명기관'으로 이 시대의 방송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요청한다"고 부탁하였다. 강원CBS사옥은 춘천시 서면 금산리 창작개발센터 옆 부지 3,028m2(916평)부지에 1층 250평, 2층 150평으로 연면적 400평 규모로 건축될 예정이다.

CCF 부흥성회 개최
춘천목회자모임인 CCF(Chuncheon Church Fellowship)가 2017 부흥회를 2월 5일(주일)부터 8일(수)까지 광염교회(박인관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강사는 강동진 목사(지리산선교동지회, 보나콤)가 초빙되어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강원군선교연합회 총회
강원군선교연합회 2017년 총회가 2월 17일(금) 오전11시 신성감리교회(박상칠 목사)에서 있었다. 강원군선교연합회 임원은 이수형 이사장(순복음춘천교회), 박상칠 회장(신성감리교회)이며, 2017년 사무국장에는 박용배 목사 후임으로 조남원 목사(불사조교회)가 선출되었다.

기독교한국침례회 춘천지방회 정기부흥회 개최
3월 19일(주일)부터 22일(수)까지 춘천침례교회(이지인 목사)에서 기독교한국침례회 춘천지방회(회장 홍요셉 목사)의 주최로 정기 부흥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강사는 강문호 목사(갈보리교회)가 초빙되어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통일광장기도회 춘천모임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저녁에 기도모임을 갖고 있는 통일광장기도회 춘천모임(김수복 목사)이 3월 27일(월) 저녁8시에 석사교 하천 야외무대에서 있었다. 거룩한 대한민국 회복, 북한 구원, 복음통일을 위해 도고 기도자들이 모여 간절한 기도를 올려 드렸다.

순복음춘천교회 이수형 목사(수석부이사장) 세계성령중앙협의회 대표회장 선출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수석부이사장인 이수형 목사(순복음춘천교회)가 세계성령중앙협의회 제2대 대표회장에 선출되었다. 세계성령중앙협의회는 1988년에 설립되어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춘천지역연합회 회장 심정례 권사(춘천중앙성결교회) 선출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춘천지역연합회 총회에서 회장에 심정례 권사(춘천중앙성결교회), 부회장에는 송화선 권사(동부장로교회), 총무는 유영미 권사(춘천침례교회)가 선출되었다. 한국여성연합회는 교파를 초월하여 교회여성들이 화해와 일치의 연합정신을 구현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하는 사회적 선교활동과 교회개혁운동 그리고 국제적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목회자연합회 국내 기독교 성지순례 및 여행 4월 24일~25일 서천 및 마량진 포구 일대

춘천목회자연합회(회장 손학균 목사)에서는 4월 24일(월)부터 25일(화)까지 춘천내 목회자 부부를 대상으로 국내 기독교 성지순례여행을 갖는다. 본 여행은 춘천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목회자들을 섬기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서천 아펜젤러 순직 기념관과 마량진 포구 한국 최초 성경 도래지와 군산 구시가지 일대를 순례한다. 춘천내 목회자 및 가족을 선착순 50명 모집하고 있다. 또한 행사를 위한 재정 후원이 요청된다.

(문의: 010-8490-0091)

취재/사진 이은정

알림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자 모집

- 조건 : 도시락 배달이 가능한 누구나 (개인 차량 사용)
- 일시 : 수/금(주1회) 10:00-12:00 시간조정가능
- 장소 : 춘천시내 일대
- 내용 : 저소득 어르신에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 문의 :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
  ☎ 254-7244 / 내선3

결식노인무료식당 자원봉사자 모집

- 조건 :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 일시 : 화/금 (주1회) 9:00-14:00 시간조정가능
- 장소 :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3층 식당
- 내용 : 무료급식 준비보조 및 배식, 설거지 등
- 문의 :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
  ☎ 254-7244 / 내선3

춘천직장선교대학 제1기 훈련생 모집

- 일시 : 4월 10일 개강(매주 월요일 저녁7시)
  1년간 33주 과정(봄, 가을, 겨울 - 3학기)
- 대상 : 직장선교 핵심지도력 양성을 받고 싶은 기독직장인
- 장소 : 효신교회 1층 선교원
- 주관 :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 주최 :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사역본부
- 문의 : 010-3899-6160 김대수 간사

잠깐!

혹시 하고 있는 성경공부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 ☐ 성격행동유형검사, 미술심리치료, 도형그리기, 우울증 스트레스 테스트, 애니어그램, MBTI검사, 힐링스쿨, 각종 설문, 5분 스피치평가 등에 참여한 적이 있다.
- ☐ 누군가 나에 대한 꿈을 꾸었다며 신앙이야기를 하며 접근한 적이 있다.
- ☐ 주변에서 "신앙상담, 신유, 영적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 ☐ 교회 밖에서 성경공부, 큐티모임, 영성훈련 등의 신앙모임을 해보자는 권유를 받았다.
- ☐ 교회 밖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교사가 목사, 전도사, 사모, 신대원생, 간사, 선교사 등이다.
- ☐ 성경공부 교사가 "성경공부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고 말했다.
- ☐ 성경공부 교사가 성경 내용을 역사, 교훈, 예언, 성취로 구분했다.
- ☐ 성경공부 교사가 "성경이 '계시록 시대' 등 8개 시대로 구분되며 반드시 예언을 깨달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 ☐ 성경공부 교사가 "죄사함이 예수를 믿고 비유를 깨달으며 새언약을 지킬 때 가능다"고강조했다.
- ☐ 성경공부 교사가 "사탄이 성전에 앉아 하나님으로 가장해 신앙인들을 미혹 한다"고 말했다.
- ☐ 성경공부 때 "천국 비밀이 감춰져 있으며 비유로 된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고 배웠다.
- ☐ 성경공부 교사가 "시대별 예언과 성취가 있으며 일반교회에서 봉함된 말씀을 계속 배우다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충고했다.
- ☐ 성경공부에서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영적 새 이스라엘(영적 새 선민)에 대해 배웠다.
- ☐ 성경공부 교사가 "재림의 때 출현하는 약속의 목자, 이긴 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 ☐ 성경공부를 시작한 뒤 주일설교가 잘 들리지 않고 목사님이 거짓목자처럼 느껴졌다.
- ☐ 성경공부 후 현재 다니는 교회가 바벨론교회라는 느낌이 들어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든다.

- **1~4번 문항 중 "예"가 1개 이상이면** 신천지 추수꾼(미혹꾼)이 접근했을 가능성이 큼
- **5~16번 문항 중 "예"가 2개 이상이면** 신천지 복음방 교육 중.
- **4개 이상이면** 복음방 교육 중반부
- **7개 이상이면** 복음방 교육 후반부

춘천 내 신천지 위장교회 및 센터 현황



석사동 114-24 (공지로 57-4)
'BLUE OCEAN' 건물 2,3층
[대학, 청년들 모임장소]



석사동 678-1 (춘천교대 앞)
5층 '영어숲'이라고 썬팅된 곳



운교동 175-9번지
(강원CBS 뒤편 골목 안) 2층,
1층은 전기 공사사무실



요선동 12-2 번지(인성병원 뒷골목)
드라마 모텔 옆 '대망주점' 2층



동내면 학곡리 602번지
(학곡리 버스종점 근처)
'카우보이' 3층



석사동 114-24 (공지로 57-4)
'BLUE OCEAN' 건물 2,3층
[대학, 청년들 모임장소]



효자동 남춘로55번길 4
법원 앞 CU 골목 'SM노래타운'
3층 **[청소년 모임처소]**



춘천로 330 (후평동 727-12)
후평지구대 건너편 '퇴계족발'
2,3층 **[청소년, 공연팀 집회장소]**

위의 성경공부나 장소에 가신 분은 꼭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단 상담전화
033.256.1260

네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예수부활

부활절연합예배 & 계란나누기

2017. 4. 16 주일 PM 1:50 순복음춘천교회



강사 이정익 목사 (신촌성결교회 원로목사)
회장 박상철 목사 (신성감리교회 담임)
축도 권오서 목사 (춘성감리교회 담임)
개회 정소 이수형 목사 (순복음춘천교회 담임)
사회 신재원 목사 (새춘천성결교회 담임)
총무 최상도 목사 (서면성결교회 담임)
서기 박태군 목사 (주님의교회 담임)
회계 김영래 장로 (신성감리교회)

www.grace0675.org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출 15: 26)

춘천 엘림수양관 김한기 목사의

월요치유집회

매주(월)요일 오후1시 30분 부터
(개별치유상담 및 개별치유안내)



영육간의 문제로 시달리는 분들!
신앙과 가정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각종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받는 분들!

김한기 목사
은혜성산교회 담임/춘천엘림수양관 관장
실생활 영성 선교회 회장
CTS "상한 마음의 치유" 설교자
CTS "빛으로 소금으로" 설교자
극동방송 "은혜의 동산" 설교자
C채널 "상한 심령의 치유" 설교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은혜성산교회 (부설) 엘림수양관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사여골길 79 ☎ (033)244-1270

차량 운행 안내
춘천이마트(오전 11시 20분)
춘천역 2번출구(오후 11시 30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춘천성시화운동을 위해 후원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개인 후원자

강옥자 고순덕 곽해옥 권영일 권영지 권혁자
권현정 김경아 김경희 김관수 김미경 김민섭
김보경 김복심 김복자 김상옥 김성희 김숙희
김순덕 김연숙 김영관 김영명 김영수 김영태
김영희 김용기 김요섭 김은아 김은희 김재홍
김정미 김정숙 김종은 김종익 김종찬 김지영
김추옥 김춘화 김춘희 김학자 김현철 김혜숙
김혜순 김화분 남궁자 문현숙 민경원 민병임
박갑출 박경미 박금화 박노항 박동환 박덕남
박만규 박명관 박명선 박민수 박상준 박순배
박승국 박옥화 박완영 박월상 박혜성 박 희
박희상 배진철 배한나 서묘석 서성진 서현애
석기찬 성숙자 성완경 성화숙 손임순 송갑수
승영인 신달호 신미연 신성균 신옥자 심효선
안순연 안현주 양미선 양봉남 양혜경 어금옥
엄근혜 연송흠 연정화 염은희 염정옥 오순자
오준영 오흠금 오흠수 원유미 원희정 유 근
유근창 유동열 유병준 유성현 유용균 유재란
유재형 유정순 유정희 윤성자 윤애자 윤은옥
윤정희 윤흥묵 이갑용 이광필 이규현 이명선
이명숙 이명순 이명희 이무식 이문희 이미경
이병일 이상만 이성숙 이세희 이순자 이승희
이연화 이영애 이영준 이영진 이용숙 이윤규
이윤숙 이윤주 이은경 이은정 이은준 이주영
이진주 이태우 임경혜 임덕수 임우선 장기영
장동자 장소영 장은희 장창순 정국환 정규시
정성옥 정우진 정은순 정은주 정은하 정인숙
정인순 정재인 정종승 정주향 정진호 정치웅
조경대 조기숙 조남진 조돈산 조영숙 조소현
조진경 주명호 주신자 지윤성 차재옥 채재관
최광우 최귀숙 최귀순 최명기 최미영 최병숙
최신이 최승경 최옥순 최영희 최은영 최종대
최종덕 최종인 탁광희 표복순 한건영 한명수
한순수 한원순 한정순 한정연 한희신 한희현
함종현 허순영 허인영 현순덕 현재용 홍영숙
홍은숙 홍인숙 홍택기 황금심 황기현 황은주
황정숙 황병찬 황병호

교회

갈릴리교회 김원침례교회 광염감리교회
거성침례교회 그말씀교회 나눔성결교회
나눔과섬김교회 늘사랑교회 동신교회
산천무지개교회 사랑의교회 사암성결교회
석사감리교회 새춘천교회 소양제일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북성결교회 신성감리교회
아미교회 엠마오교회 옥산포교회
온누리교회 우두감리교회 예담교회
예사랑교회 예수촌교회 주의숲교회
주찬양교회 주항교회 축복교회
춘천광명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명성감리교회
춘천성산교회 춘천우리교회 춘천은혜교회
춘천일신장로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중부교회
춘천침례교회 한빛교회 한울섬김교회
화목교회 효자교회 후평제일교회

단체 및 기업

JDM 건강한사회를위한시민연대
기독문인회 매일관광 베드로선교센타
설곡산기도원 성시무용단 아가갤러리
영광한의원 월드비전 이디야남춘천
정기방문요양센터 춘천와이신협
행복재가요양기관

※ 명단에 누락이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연락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033-256-1260

후원참여하기

1달에 1번,
1천원으로 함께해주세요!

131-005-937566 (신동협동조합)
172242-51-085114 (농협)
예금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성시신문의 광고란을 통해 큰 광고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문의/상담 033.256.1260